



2018년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AWFF) 및 아시아간호연맹(AANA) 회의가 홍콩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 및 ‘아시아간호연맹 회의’

### 내년 서울에서 열린다 ... 대한간호협회 주관

#### 한국, 간호법 제정 위해 총력 복지부 간호전담부서 설치 주력

2018년 국제간호협회(ICN)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AWFF) 및 아시아간호연맹(AANA) 회의가 홍콩간호협회 주관으로 홍콩에서 열렸다. 내년 2019년 포럼 및 회의는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올해 포럼 및 회의에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타이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마카오, 필리핀 등 10개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 대표로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립 회장과 과월희 제1부회장이 참석했다.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Asia Workforce Forum)은 11월 15~16일 열렸다. ICN이 후원했으며,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ICN 정책책임자가 참석했다. 포럼은 간호사들의 사회·경제·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

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년 열린다.

올해 포럼에서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 간호사 처우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각 국가별로 간호사 인력에 영향을 준 법·제도적 이슈, 간호사 근무여건 현황, 정부와 협상 또는 논의 중인 간호정책 현황 등을 공유했다.

신경립 대한간호협회장은 한국의 현황 발표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 등에 대해 소개했다.

신경립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러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

부서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에 이어 아시아간호연맹(Alliance of Asia Nurses Association) 회의가 11월 17일 열렸다. 연맹은 세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시아 간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다.

올해 회의에서는 ‘간호업무 및 정책의 법적 보호’ 주제로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과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발표를 통해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 소개했다.

간호사 업무를 새로 규정할 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2월 29일자로 공포됐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당시 신경립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처음 개정된 것이며,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가 힘을 모아 이뤄낸 결실이다.

이러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펼치고 있는 정책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중단과 재검토 촉구

### 간호계 공동성명 발표 ... 간호교육체계 왜곡 우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0개 산하단체(이하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 11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업 중단과 사업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입간호사들의 병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에서 간호계는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 간호대학 간 위화감 조성, 실습을 위해 타 대학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위험증가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안전 문제, 사업대는 배제한 채 국공립 간호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교수 역량 강화 문제 등을 이유로 간호교육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과한 모던 대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중단과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13일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 공고한 내용을 보면 3년간 매해 지원규모는 총 28억 5천만원으로, 23개 국공립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표준형의 경우 3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 당 6억원 범위 내에서, 교육형의 경우 부속병원 없는 5개 대학을 선정해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시뮬레이션 센터 등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과 시뮬레이터, 평가 모니터링 장비 등 각종 시뮬레이션 및 실기 교육을 위한 기기·장비 구입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간호계는 표준형과 교육형으로 국공립 간호대학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간호대학을 표준형과 교육형으로 나눠 실습교육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해 그 누구의도 논의할 바 없어 국공립 간호대학만을 위해 표준형과 교육형을 분리해 놓은 것인지 혼란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계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중단과 사업 내용 전면 재검토의 이유로 우선, 국공립대 간호대학(학과)에만 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학 간 위화감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점을 꼽았다.

현재 203개 간호대학(학과) 가운데 사립대는 180개, 국공립대는 23개이다. 국공립대 간호대학(학과)은 전체의 11.3%에 불과한 실업임에도 이번 사업은 국공립대에만 실습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대다수 사립대의 예산 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 지원 유무에 따라 서열이 나뉘어져 대학 간, 교수 간,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임상실습 교육여건이 취약한 대학이 아닌, 부속병원이 있는 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간호계는 “이번 사업은 이미 부속병원을 가지고 있고 교육여건마저 우수한 국공립대에 매년 6억원씩 3년간 18억원을 지원해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부속병원이 없거나 인근 지역에 의료기관이 부족해 임상교육에 취약한 대학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장비와 시설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2면에 계속)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서울 강북힘찬병원 간호부(간호과장 김미현)에서 참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김해북음병원 간호부(간호이사 배영희)에서 참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양산부산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장우연)에서 참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국립목포병원 간호과(간호과장 김원숙)에서 참여했다.



##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들 ‘한글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글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글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유통관리 기업)